환지본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박물관'서 만난다

11월 11일 개관식…12일 정식 개관
실록 110년 만에 오대산 품으로
월정사 기부가 결정적 계기 작용
왕조실록 전시되는 유일 박물관
실록 연구 · 지역문화 활성화 기대

강원도 평창=신중일 기자


조선왕조실록,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와 함께 새롭게 문을 연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경.

강원도 평창 월정사가 수호했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환지본처된 오대산 사고본은 새롭게 조성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직무대리 노명구)은 11월 9일 강원도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의 오대산 사고본 원본을 원 소장처였던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실록과 의궤를 보관 · 전시하는 실록박물관을 설립해 11월 12일 정식 개관한다" 고 밝혔다.

일제 반출…불교계 중심돼 환수운동

조선시대 지방 외사고 중 하나인 오대산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의궤는 당대 기록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월정사는 오대산사고의 수호사찰로서 주지가 수호총섭을 맡고 승병 20명이 주둔하며 실록을 지켰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3년 오대산 사고 실록 전량과 의궤 일부가 일본으로 반출됐고, 줄곧 일본에 수장돼 있었다. 2006년 불교계를 중심으로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수위원회' 가 출범해 환수운동을 펼쳤고, 결국 일본 도쿄대가 서울대에 오대산사고본 실록 47권을 기증했다.

2011년에는 모든 오대산사고본을 되찾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왕실의궤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 가 창립됐고, 그해에 의궤 44종 81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머지 오대산 사고본 실록들은 2017년에 환수됐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75책, 환수된 의궤는 82책이 전해진다.

환수된 실록과 의궤는 줄곧 서울 종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왔지만, 월정사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범도민환수위원회' 가 창립되며 본래 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에는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에 대한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하고, 월정사가 실록과 의궤 영인본을 전시하던 왕조실록 · 의궤박물관을 국가에 기증하며 실록박물관 개관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실록박물관은 리모델링 작업 등을 거쳐 개관이 이뤄지게 됐다.


조선왕조실록박물관 전시관 모습. 실록과 의궤 원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국립박물관이다.

실록, 의궤 원본 전시 유일 박물관

12일 공식 개관하는 실록박물관은 무엇보다 실록의 원본을 상시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실록과 함께 오대산 사고본 의궤 원본도 전시된다. 박물관은 총 면적은 3,537㎡로, 지상 2층 규모로, 관련 유물 1207여 점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장고와 상설전시실 · 기획전시실 · 실감형 영상관 등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우선 개관하는 공간은 상설전시실이다.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던 실록과 의궤의 편찬과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반출된 후 110년 만에 본래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국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전시로 꾸며졌다. 기록의 나라였던 조선왕실의 실록과 의궤의 역사적 의미와 내용, 오대산 사고본의 특징, 사고 수호 사찰들의 역할 등을 세세하게 정리해 조명하고 있다.

특히, 오대산 사고본만의 특징인 교정쇄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대산사고 실록 중 〈성종실록〉 9책과 〈중종실록〉 50책은 다른 사고본 실록과 달리 교정을 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원래 실록은 몇 차례 원고를 인쇄해 교정을 본 뒤 새롭게 인쇄해 정본을 만들고 교정쇄본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유일하게 남은 전주사고본을 기준으로 실록을 다시 편찬하는 과정에서 물자가 부족해 교정쇄본을 남겨 오대산사고에 봉안했다.

실록박물관은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교정지의 가장자리를 잘라 제본하였기 때문에 다른 실록에 비해 책의 크기가 작고, 글자를 교정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오대산 사고본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은 최종 교정쇄본을 정본 대신 봉안한 유일한 사례이며, 실록의 제작 과정과 조선시대의 교정 체제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문화분권시대'를 여는 박물관으로

문화재청은 실록박물관을 실록 상설전시와 더불어 실록과 의궤를 통합 연구하는 기관이자 지역 문화 향유 중심지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명구 국립고궁박물관장 직무대리는 "실록박물관이 여러 곳에 나눠 소장되어 있는 실록과 의궤의 통합 연구의 중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실록, 의궤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와 조사 연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세계기록유산의 가치 확산, 환수 문화유산 관련한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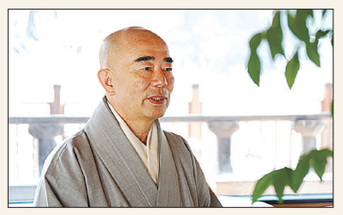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일본에 있던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를 환지본처시키고, 다시 오대산으로 모시기까지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비로소 제자리에 모실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이는 월정사를 비롯한 불교계와 강원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여 이뤄질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문화분권의 시대다. 제자리를 찾은 문화유산이 생명력을 갖게 되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록박물관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매주 화요일은 휴관일이다. 11~4월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하며, 내년 5~10월부터는 관람시간을 오후 5시 30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인터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제자리 찾은 실록…지역 활성화 기대"

오대산 사고본 환수운동 산증인
의궤博 기증으로 환지본처 견인
"문화재는 제자리에서 가장 빛나
오대산사고본 환수, 영혼의 회복"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원본이 아닌 영인본이 있는 박물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박물관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단과 상의해 월정사 실록 · 의궤박물관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으로 새 단장해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요."

11월 9일 만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은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의 결정적 계기가 된 월정사 실록 · 의궤 박물관의 국가 기증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정념 스님은 2006년 시작된 조선왕조실록 ·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환수운동의 산증인이다. 2006년 3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범한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에서 정념 스님은 철안 스님(당시 봉선사 주지)과 공동의장을 맡아 실록 환수를 주도했다.

이후 이어진 의궤 환수에도, 오대산 환지본처를 위한 범도민 운동에도 그 중심에는 항상 정념 스님이 있었다. 이는 월정사가 역사적으로 오대산 사고를 지켰던 수호사찰이었고, 현재 그 정신을 이어가는 후학으로서의 책임감에서 이뤄진 것이다.

"월정사는 1606년 조성된 오대산 사고의 수호 사찰이었습니다. 당시 월정사 주지는 수호총섭이었고, 승병 20여 명이 주둔하며 사고를 지켰죠. 사고를 지키는 수호신장의 책임은 지금도 월정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실록과 의궤를 찾아오고, 오대산으로 환지본처시키는 일은 월정사의 의무였습니다."

그런 만큼 110년 만에 오대산을 다시 찾은 실록과 의궤를 바라보는 정념 스님의 소회는 남달랐다.

"'환지본처는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납니다. 실록과 의궤는 본래 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옴으로써 그 영혼과 역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에는 무엇보다 불교계의 원력과 강원도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대산 사고 수호총섭으로서 책임을 마무리한 정념 스님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이제는 개관하는 실록박물관이 지역 문화 중심지로 활용 · 발전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실록박물관에 수장된 실록과 의궤는 굉장히 큰 문화 자산입니다. 이를 박물관과 지역이 함께 교육프로그램,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관광 · 경제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0돌 한국불교학회 "정법 밝히는 학회 되겠다"

한국불교학회, 창립50주년 기념식
권기종 명예교수 등 공로패 수여
탄허학술상에 이원석 교수 수상
11월 4일 국제학술대회 이어져


한국불교학회는 11월 3~4일 동국대 일원서 창립5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동국대 팔정도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학회가 부처님 정법을 밝히는 학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학회(회장 백도수)는 11월 3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립 50주년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제22대 학회장 성운 스님을 비롯한 역대 학회장, 백도수 현 학회장, 이평래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집행위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축사를 통해 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세계 학계를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하길 기원했다. 돈관 스님은 "근대 이후 서양문물이 쏟아지며 한국불교는 오래된 사상으로 취급받기도 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불교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축적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 운영 지표로 △정법을 보편화하는 학회 △교단을 빛나게 하는 학회 △불교를 세계화 하는 학회를 제시하고 새로운 50년을 열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백 학회장은 "운영 지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회원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불교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 및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한국불교학회는 반세기 동안 쌓아올려 탄탄해진 대외적 위상을 굳건히 하고, 연구의 양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회 발전에 앞장선 故윤용숙(실상화) 보덕학회 설립자와 권기종(제15대 학회장) · 김선근(제18대 학회장) · 김용표(제19~20대 학회장) · 권탄준(제21대 학회장) · 성운 스님(제22대 학회장) · 혜거 스님(한국불교학회 명예고문)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자현 스님(월정사, 중앙승가대)과 김영미 부산대 교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제3회 탄허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로는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가 선정됐다.

기념식 이후에는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가 '한국불교학회의 반세기 회고, 그리고 나아갈 길' 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한국불교학회는 11월 4일 동국대 만해관 2층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갔다. 학술대회는 김용표 명예교수의 '종교불학의 학문적 성격과 해석학적 과제-문명전환기의 불교연구 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세계 석학들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종교불학(宗教佛學, Buddhology of Religions)' 이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명예교수는 " '종교불학' 은 종교학과 세계종교 이해를 기반으로 한 불교의 새로운 인식 방법으로, 종교에 대한 불교학적 해석들도 해당된다"며 "종교불학은 '불교에 대한 종교학적인 이해' 및 '종교에 대한 불교학적 이해' 를 목표로 하는 '불교적 종교학' "이라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유식불교 △불교인식론 △현대사회 윤리와 계율 △한국불교학의 나아갈 방향 등 9개 분과에서 44명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발표했다.

신중일 기자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이탈리아 장엄한다

연등회보존위, 로마서 특별전
'빛의 우주, 연등회'를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연등회 역사, 장엄등 등 선봬


11월 10일 이탈리아 로마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빛의 우주, 연등회' 특별전에서 현지인들이 연등 아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가 이탈리아에서 선보인다.

연등회보존위원회(보존위원장 진우, 이하 연등회보존위)는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2023 로마 한국주간(11월 5일~11월 12일)의 주요행사로 '빛의 우주, 연등회' 특별전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시는 K-문화의 원류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이탈리아 최초로 소개하는 자리로 22건 205점의 연등회 관련 작품들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 작품은 실상사 백장암 석등(국보 제10호), 불전사물(佛殿四物)인 범종, 법고, 목어, 운판을 형상화 한 장엄등이다. 이탈리아 로마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을 모티프로 제작한 장엄등도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연등행렬을 재현한 닥종이 인형과 행렬등 120여 점을 이용해 한국문화원 테라스에 행렬등 터널을 제작하고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한국 연등회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11월 9일 열린 특별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유럽 문화의 중심인 이탈리아에서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등회가 세계인들이 향유하는 국제적 페스티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창녕 광룡사 일원, 명승 지정된다

문화재청, 10일 지정 예고
"고찰과 풍광 어울림 탁월"


창녕 관룡산 광룡사 일원.

창녕 관룡산 광룡사 일원이 국가지정 유산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과 곡성 함허정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 을 재현한 듯한 불상인 용선대(龍船臺)와 관룡사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적 가치를 지녔다.

명승으로 같이 예고된 '곡성 함허정 일원' 의 함허정은 조선 중기 문사 제호정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섬진강(순자강) 일대 구릉지에 건립한 정자다.

함허정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가 용궁을 향해 입수하는 형국으로, 거북이의 등 위에 함허정(涵虛亭)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의 깊은 웅덩이인 용소(龍沼)와 구암조대(龜巖釣臺)라 불리는 하중암도가 있으며, 거꾸로 '용(龍)' 자를 새긴 용암(龍巖)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곡성 함허정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